논어 13편 자로 11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『善人爲邦百年，亦可以勝殘去殺矣。』誠哉是言也。」

독음 · 자왈 선인위방백년 역가이승잔거살의 성재시언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선한 사람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잔혹함을 이기고 사형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옳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善 착할 선 선 / 人 사람 인

爲 할 위 / 邦 나라 방 방 / 百 일백 백 백 / 年 해 년 년

亦 또 역 / 可 옳을 가 가 / 以 써 이 이 / 勝 이길 승 승

殘 해칠 잔 잔 / 去 갈 거 거 / 殺 죽일 살 살 / 矣 어조사 의

誠 미쁠 성 성 / 哉 비로소 재 재 / 是 이 시 시 / 言 말씀 언 언

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